

열정으로 한계를 뛰어넘은 한 아시아 선수

태평로



이 위재
스포츠부장

“농구는 신장(Height)이 아니라 심장(Heart)으로 하는 것이다.” 미국 프로 농구(NBA) 스타였던 앨런 아이버슨이 했다는 말이다. 정확하게는 Height가 아니라 Size라고 했고 누군가 운을 맞추기 위해 변형한 격언이지만 그 메시지가 주는 여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열정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단호한 결의’,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의지가 종종 기적을 낳는다는 것이다. 의지란 심조작성(心造作性), 마음이 만드는 성질이다.

NBA에서 뛰는 450여 선수 평균 키는 198cm. 유키는 26cm나 작다. 유키와 같은 팀에서 뛰는 신인 동기 짝이 223cm인데 둘이 같이 서 있으면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처럼 보인다. 유키는 지금 NBA 선수 중 물론 가장 작다. 79년 NBA 역사를 통틀어도 열한째 작은 선수다. NBA 경기장에서 유키를 보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중학생처럼 보인다.

유키는 아직 NBA를 뒤돌아볼 만큼 존 재감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이번 시즌 17경기에 나와 경기당 (평균) 3.3분밖에 못 뛰었고 1.4득점을 기록 중이다. 대개 승부가 기운 4쿼터 후반 이른바 ‘가비지 타임(garbage time)’에 주로 투입된다. 그런데 그 순간 장내 열기는 여느 수퍼스타 못지않다. 댈러스지 역신문기자는 “그는(NBA 수퍼스타) 르브론 제임스처럼 높이 될 수도 없고, 키가 2m를 넘지도 않는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존재다. 그게 관중이 감동(동질감)을 느끼는 요소”라고 했다. 그를 통해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구나’라는 대리 만족을 얻는다는 얘기가.

NBA 최단신 농구 선수 일본 유키 미국 팬들도 감동받아 열띤 응원 부정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해석 단호한 결의로 꿈의 무대 입성

유키는 한국 프로 농구(KBL)에 와도 가장 작은 키다. 그런데 키로 세계 최고 선수들이 경쟁하는 NBA를 넘고 있으니 그저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다.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는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큰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는 대사가 나오는데 유키를 두고 하는 말 같다.

그의 성공 비결은 사실 진부하다. 일본 언론들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노력과 열정, 그리고 끈기다. “훈련이 힘들어 지친 적도 있었고, 플레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재능이 없는 건가) 좌절하기도 했다. 부상으로 고된 날도 있었다. 하지만 농구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농구가 싫어진 적도 없었다.”

한창 선수로서 기량이 커가는 고교 시절, 코로나 사태로 정상적인 연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안했지만 그는 “상황은 부정적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본기를 더 다지고 약점인 (영양) 근육을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단단한 하체 중심을 바탕으로 공을 보지 않고 손 감각만으로 드리블을 펼치며 적진을 돌파하는 그의 기술은 이때 본격 연마한 것이다.

“성공을 얻기 위해 고통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 생각했다. 힘든 일을 겪는다면,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을 하는 게 긴 인생을 통해 되돌려받는 거라고 믿고 있다.”

강현의 히스토리 인 팝스 [247] Edith Piaf 'La Vie en Rose' (1946)

오드리 햅번 스타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축하 무도회에서 그의 장녀 이방카가 입은 드레스를 두고 온라인에선 입방카가 한창이다. 입방카는 1954년 영화 ‘사브리나’에서 오드리 햅번이 입은 웨버르 드 지방시 스타일의 드레스를 재현했다. 검은색 긴장갑과 스트레토 힐,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착용하면서 햅번과 비슷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백악관은 “오드리 햅번은 오랫동안 이방카의 개인적 영감의 원천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누리꾼들은 금수저 이방카가 선택한 패션이 소녀 시절에는 나치군에 저항하고 평생을 유니세프와 같은 인도주의적 활동을 펼친 햅번의 기억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 논란에 대해 햅번의 아들인 슴 햅번 페라는 이방카가 이런 특별한 자리에서 궁극적인 우아함과 품격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어머니의 정치 성향은 트럼프와는 맞지 않는다고 접점을 일침을 놓았다.

빌리 와일더 감독의 영화 ‘사브리나’는 오드리 햅번과 험프리 보가트 그리고 윌리엄 홀튼 같은 명배우들이 참여한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 장르물이다. 이후 태어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영감을 제공한 명작이다. 부유한 사업가



집안의 운전기사의 딸인 사브리나는 주인집 바둑동이 둘째 아들 데이비드를 짝사랑하지만 그의 짝은 평생 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노총각 형 라이너스였다. 파리에서 요리를 배우고 돌아온 사브리나는 라

이너스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샹송의 고전인 이 노래를 불러주는데, 험프리 보가트의 무표정한 얼굴이 기억에 남는다. 촬영 당시 이 두 배우의 나이 차는 무려 30년이었지만 출중한 연기력 앞에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샹송의 여제 에디트 피아프의 자전적인 이 노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사랑 노래 중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고 불멸의 고전이 되었다. 세상을 떠났어도 가장 위대한 여배우의 명예를 지키고 있는 오드리 햅번처럼.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눈동자/입가에서 사라지는 미소/이것이 나를 사로잡은/그의 수정하지 않은 초상화예요(Des yeux qui font baisser les miens/Un rire qui se perd sur sa bouche/Voilà le portrait sans retouche/De l'homme auquel j'appartiens).”

음악 평론가

社 說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나 신청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아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고민하다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하는 쪽을 택했다.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사례다. 그런데 체포에서 기소 직전까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고비마다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졸속 수사권 조정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상황이 겹잡을 수 없이 꼬여 버린 데는 공수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 수사에 무리하게 뛰어 들었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일반적으로 소환 통보하고 불응하자 체포를 시도했다. 체포영장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소평’ 논란을 불렀다.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대안이 있었지만, 대통령을 관저에서 끌어내고 구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커 보였다.

법원도 계엄 사태 이후 법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여론에 편

승한 판단을 해오다 마지막 순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스스로 모순에 빠져 버렸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내란 혐의로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 수사권에 혼선이 있고 수사 기관이 애매한 규정을 들어 주장할 경우 법원이 원칙에 입각해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수사기관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온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 전 보완수사를 해온 관례를 인정하지 않고 영장 영장을 불허했다. 해직 교사를 특채한 혐의를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경우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기소한 사례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수사권 관련 졸속 입법과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한 법리에 따라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 사태만큼 잘 보여주는 일도 드물 것이다.

한국 손발 묶인 사이 미·북 협상 위험한 시동 거나

북한 외무성이 26일 “미·한이 각종 전쟁 연습들을 벌여놓고 있는 것은 조선 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 보장에 대한 엄중한 도전 행위”라며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표면적으로 북한이 문제 삼은 것은 한·미 공군이 지난 21~24일 실시한 ‘쌍매’ 연합 훈련이다. 하지만 북한의 속내 는 앞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의 대화 재개될 것에 대비 해 한·미 연합 훈련 중단 같은 여러 협상 카드의 값어치를 높여려는 데 있을 것이다. 김정은은 이날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며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이 완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트럼프는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이라며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즈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 부소장은 “북한과의 협상이 가능하다면 한·미 연합 훈련 중단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JD 벤스 미 부통령은 “트럼프와 전임자들의 차이는 가장 귀중한 자원이 미군의 (해외) 파병에 인색해야 한다는 시각”이라고 했다. 주한 미군 감축이나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은 북한 김씨 일가의 숙원인

데, 트럼프 행정부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북이 이것으로 협상의 물꼬를 트려 한다면 우리 안보에 당장 직선호가 커진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와 피트 헤그세스 신임 국방장관 등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 세력(nuclear power)”이라고 불렀다. 미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을 반출 또는 폐기하고, 핵능력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말이다. 예전에도 미국이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니다. 미국에 신임 행정부가 출범하면 핵 동결을 포함한 모든 옵션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미국의 행정부 교체가 되면 우리 대통령부터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앞다투어 미국을 방문해 대북 정책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설득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손발이 묶여 있다. 트럼프를 직접 설득하는 정상 외교는 불가능하다. 미·북 협상에서 ‘과속’ 사고가 날 확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외교부는 모든 라인을 동원해 미국과 대북 정책을 조율할 채널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재정자립도 10% 안팎 野 지자체장들의 설 지원금 살포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민생 지원금을 뿌린다. 경기도 2곳, 전북 5곳, 전남 3곳 등 총 10곳이 재정 자립도가 10~30%대에 불과하거나 심지어 10%도 안 되면서 전 주민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20만원씩 나눠주는 전북 진안군은 지난해 재정 자립도가 6.69%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권이다. 각각 1인당 30만원씩을 나눠주는 전남 보성군(7.61%), 전북 남원(8.68%), 전북 정읍(9.69%) 역시 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된다.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전북 김제(10.02%), 설에 50만원, 추석에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전남 영광군(11.72%), 10만원씩 지급하는 전남 나주(16.79%)와, 30만원씩 주는 전북 완주군(17.67%)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와 파주시 역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설 연

휴를 앞두고 주민들한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광명시와 파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각각 34.75%와 29.71%로 전남·전북 지자체들 보다는 높지만 경기도 재정 자립도(55.09%)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파주시와 광명시는 인구가 각각 51만명, 27만명으로 510억원, 270억원이 든다.

설 명절 지원금을 뿌리는 지자체장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초·재선 기초 지자체장들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인당 25만원’ 공약과 대표 정책인 ‘지역 화해’에 맞춰 대부분 지역 화해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재정 자립도 낮은 지자체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에 의존하는 신세다. 그걸 가져다 자기 동네에 뿌리는 건 양심 불량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일당, 《중국공산당(中共)식 감시검열》로 국민 옥죄려 한다

히틀러·스탈린 식 전체주의 검은 그림자 | 이런 악(惡)의 어둠, 어떻게 오는가? | 《생각 없음》에서 온다



이재명파 그 일파가 ①(카톡을 검열)하겠다고 했다. ②(여론조사를 규제)하겠다고도 했다. ③(비판 언론에 광고 배려)고 6대 시중은행장들에게 말했다. 이게 [노동당]?

묻는다, 생각 좀 하고 답하라

① 국민 일반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그만 걸 알아 무엇 하느냐고? 정치 따위엔 관심 없다고?

② 언론인·문화인·지식인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그것에 분노와 경악을 표했는가? 그게 뭐 그렇게 큰 뉴스냐고?

으스스하고 무시무시한 세상

《카톡-여론조사를 뒤지고 광고탄압을 하겠다는 발상》은 《전체주의로 가겠다》란 뜻이다. 《히틀러 독일, 스탈린 소련 같은 세상》이다. 그게 그렇게 나쁜 거냐고? 시진핑 중국이 그런 나라다.

휴대폰 개통하려면 반드시 안면 인식을 찍어야 한다. 거리의 카메라들이 사람들의 얼굴을 찍는다. 《그걸 보고 AI가 그들의 [정치적·사상적] 신원을 파악》한다. 《북한 수용소 군도》도 그런 지옥이다.

《살마》 한국이 그렇게 될리아 있겠느냐고? 당신이 카톡으로 ‘탄핵 반대’를 퍼 날랐다고 하자. [민주 파출소]라는 자들이 당신을 [내란 동조 죄]로 고발할 것이다. [입법 독재 기구] 국회가 그런 처벌법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래도 《살마, 살마》하고 있을 텐가, 영? 이 바보야!

이런 악의 뿌리는?

이런 세상은 어떻게 해서 오는가? 전체주의 연구가 한 나야렌트는 《유대인 6백만 명을 학살한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을 방청했다. 《악(惡)의 화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묻고 답했다.

“저 악(惡)의 뿌리는 무엇인가?” 《악의 평범함(banality of evil)》이다. 《도무지 생각이라곤 없는 인간》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어 죽여” 하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명령을 로봇처럼 수행하는 [악]의 저 무감각 과역사로움》

《생각 없음·무감각》이 잡아먹는 자유 대한민국

한국 운동권도 《전체주의 NL 극좌를 마치 [진보인] 양치고》 꾀안았다. 한국 유권자들도 《그런 그들을 그저 [진보인] 줄만 알고》 뽑아주었다. 《극좌는 전체주의이고, 전체주의는 [진보도] 빛도 아니라는 [상식에] 무감각》 했다.

《이 [비판적 지성(知性)]의 비어있음은 좌파 자신들부터 타락》시켰다. 그러곤 자유대한민국을 잡아먹는다.

생각 좀 하고 살자

그러나 자유인들은 절망에 잠겨 있을 필요는 없다.

- ① 2030이 깨어난다.
- ②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이 불허됐다.
- ③ 윤석열 지지가 전국 48.8% 광주-전남북의 32%(공정)로 뒤졌다.

④ 김문수 지지(46.4%)가 이재명 지지(41.8%)를 제쳤다 (조원씨엔아이).

한국인들 (이재야 [생각 없음]에서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나?

선구자 함석헌은 외쳤다. “생각하는 백성이야 산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말했다. “인간은 갈대처럼 약하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자유인들 우리 《생각하는 갈대》를 생각하자, 설 연휴에.

※ 공정 : 1.20~21 무선 ARS 1014명. 응답률 5%. 표본오차(95% 신뢰수준 ±3.1%p). 조원씨엔아이 : 1.18~19 무선 ARS 1006명. 응답률 6.7%. 표본오차(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 여신투입팀P 참조.

이루 근 일

뉴데일리의 눈빛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1월 24일 게재 되었습니다.